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의 고유성 판단 기준 설정의 필요성

이 건 식*

국문초록

이 글은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의 고유성 판단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면서 일본에 유입된 한국 고유한자를 발굴하였다.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판단 측면에서 고유성 판단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음을 말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일본의 경우에는 한자 疰과 噓을 일본 국자로 판단한 착오가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한자 鯨과 鯨을 한국 고유한자로 판단한 착오가 있었음을 말하였다.

同形異義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일 양국에서 적용한 조자법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堊, 俵, 鑊, 魴, 鱈’ 등은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에 모두 존재하지만 조자법의 차이에 말미암아 그 의미가 다른 것임을 언급하였다. 일본 국자의 경우 ‘堊(ぬた, 沼田) 俵(はたらく) 생각해서(고민해서) 일하다) 鑊(みづかね, 水銀), 魴((ど)じょう, 미꾸라지), 鱈(はも, 갯장어)’ 등의 의미를 가지나 한국 고유한자의 경우 ‘堊(터), 俵(다짐), 鑊(복자), 魴(가물치), 鱈(삼치)’ 등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국 고유한자와 일본 국자 간의 수수 관계의 측면에서는 고대의 시기에는 한국 고유한자 ‘棕(창고), 獾(담비), [金瓮](금속제 장군), 鎰(자물쇠)’ 등이 일본으로 유입되어 사용되었으며, 19세기 말 20세기 무렵부터는 일본의 국자인 ‘峠(とうげ, 고개), 畑(はたけ, 밭), 働(はたらく, 일하다), 柁(まさめ, 나무의 곧은 겉), 鱈(たら, 大口魚), 𩺰(かます, 가마니), 𩺰(もみ, 벼), 込(こめる, 속에 담다), 鰯(いわし, 정어리, 멸치), 腺(분비샘), 腓(궤장)’ 등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일본 자료에 남겨진 한국 고유한자의 흔적을 찾는 측면에서는 ‘閫, 桎, 瀋’ 등의 훈이 일본 자료에 각각 ‘ミヤコ(도회지), いのる(신께 빌다), ヲサム(치료하다)’ 등으로 남아 있는 것에 착안하여 ‘閫, 桎, 瀋’ 등에 적용된 조자법을 밝혔다. 閫의 경우 門(문)과 西(서울)로 구성된 회의자로 ‘복잡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桎의 경우 生이 ‘근신하며 지나다’의 의미인 ‘쇠’의 훈차 표기인 근거를 가지고 桎을 차자 표기 ‘生/쇠’에 木 符를 첨가한 형성자로 밝혔다. 한편 瀋의 경우 善에 기원한 形聲字일 가능성과 그 의미는 ‘치료하다’일 가능성을 제안했다.

[주제어] 日本 國字, 韓國固有漢字, 漢字의 造字法, 固有性 判斷 基準, 會意字, 形聲字

*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leeksl@dankook.ac.kr

— 목 차 —

I. 서 언

III. 결 언

II.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의 고유성 판단 기준 설정의 필요성

I. 서 언

이 글은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¹⁾의 고유성 판단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일본에 유입된 한국 고유한자를 발굴하고자 한다.

일본 國字 연구의 경우 國字에 대한 정리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착수되어 지금까지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1965년 이전까지 일본 국자에 대한 연구 동향은 横山七郎(1965)에 의하여 간명하게 정리되었다. 横山七郎(1965: 55-68)에 따르면 昌泰年間(898~900)에 성립된 『新撰字鏡』의 小學篇에서 일본 國字가 다수 포함된 405자 규모의 한자들이 정리되는 것을 시작으로 菅原爲長(1158~1246)의 『字鏡集』, 新井白石의 『同文通考』 등에서 일본 國字가 논의되었으며, 일본의 메이지(明治) 시기에는 國字論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20세기에 간행된 여러 종류의 現代 字書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일본 국자의 목록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横山七郎(1965: 55-68)에 따르면 新井白石의 『同文通考』에서 80자, 伴值方の 『國字考』에서 44자, 『大字典』에서 200자 등의 일본 국자가 논의되었다. 그런데 일본 국자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일본 국자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菅原義三(1990)에서는 1,554자, 笹原宏之(2017)에서는 1,502자의 일본 國字가 논의되었으며, 大原 望(2014)에서는 이체자를 다수 포함한 3,233자의 일본 국자가 논의되었다.

菅原義三(1990)에서 논의한 일본 국자의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개인이 만든 글자를 대폭적으로 포함시키고, 日本 국자로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을 포함시킨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菅原義三(1990)에서 논의한 일본 국자의 경우에 일본 국자의 고유성을 가지지 않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 국자의 고유성을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實學 時代 초기의 실학자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의 『芝峰類說』에서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여러 실학자들의 관심을 받아 논의되다가 鮎貝房之進(1931)에 이르러 한국 고유한자의 造字法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한국한자어사전』에 이르러 모두 201자의 한국 고유한자가 정리되었다.²⁾

1) 이 글에서 말하는 일본 國字와 한국 固有漢字의 개념은 丁若鏞의 『雅言覺非』에서 말한 ‘吾東之造字’를 말한다. 吾東之造字에는 우리 말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자형이 기존의 漢字와 동일할지라도 造字法이 다르기 때문에 자형이 동일한 漢字와 다른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新井白石의 『同文通考』에서 國字와 國訓字를 구별하고 있는데 『同文通考』의 國字는 대체로 吾東之造字가 지시하는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國訓字의 경우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借字로 활용된 漢字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國訓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기원이 된 漢字의 의미를 한국이나 일본에서 대폭적으로 변개시켜 사용한 경우에만 國訓이나 國義의 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2)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주요한 연구에 대해서는 이진식(2012: 189-191), 이진식(2015: 144-145) 등에서 간략하게 정리되었다. 다만 이진식(2012), 이진식(2015)의 논의에서는 丁若鏞의 『雅言覺非』에서 한국 고유한자에 대해 논의한 것이 누락되었다.

鮎貝房之進(1931)은 조자법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한국 고유한자를 연구했다. 그리하여 鮎貝房之進(1931)의 연구로 한국 고유한자의 조자법이 많이 밝혀졌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조자법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조자법을 잘못 제시한 경우도 있다. 鮎貝房之進(1931)의 뒤를 이어 남풍현(1989, 2014)에서는 고대 국어 시기에 존재했던 습자에 의한 한국 고유한자가 정밀하게 논의되었으며, 『한국한자어사전』에서도 일부 글자의 조자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진식(2009ㄱ, 2009ㄴ, 2012, 2013, 2015) 등의 연구에서도 몇 가지 한국 고유한자에 대하여 그 造字法을 논의하였다. 이진식(2009ㄱ, 2009ㄴ, 2012, 2013, 2015) 등의 연구에서는 形聲의 방법으로 조자된 한국 고유한자는 우리말에 대한 차자 표기가 한자의 압력으로 漢字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形聲에 의한 한국 고유한자의 전 단계 상태인 우리말 차자 표기를 발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예컨대 한국 고유한자 𪛗가 고유성을 가지는 증거로 𪛗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 차자 표기 代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한국 고유한자의 조자법을 밝히기 위한 이상과 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유한자 중에는 아직도 여러 글자가 그 고유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일본과 한국이 고대 국가 이래로 漢字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해 온 것과 일본과 한국의 고대 국가 시기에는 주로 한국의 문화가 일본의 문화에 유입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에 일본 國字로 논의되는 것 가운데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固有漢字가 일본에 유입되어 사용된 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국자로 논의되는 것을 한국의 고유한자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의 고유성 판단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 연구의 분야에서 고유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러한 연구 상황 아래에서 이 글에서는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의 고유성 판단 기준 설정의 예비적 연구로 네 가지 측면에서 고유성 판단 기준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의 고유성 판단 기준이 엄격하다면 발굴되지 않은 중국의 漢字를 일본의 국자와 한국의 고유한자로 판단하는 착오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밀한 고유성 판단 기준은 자형이 동일한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조자법 차이를 인식케 하여 자형이 동일한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가 아무런 수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밀한 고유성 판단 기준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한국 고유한자를 발굴하는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서 정밀한 고유성 판단 기준은 일본의 자료에 흔적으로 남아 전하는 한국 고유한자의 흔적을 시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의 제2장 제1절에서는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고유성 판단 착오의 문제를 다룰 것이며, 제2장 제2절에서는 자형이 동일한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조자법 차이를 논의할 것이며, 제2장 제3절에서는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수수 관계를 논의할 것이며, 제2장 제4절에서는 일본 자료에 남아있는 한국 고유한자의 흔적을 찾아서 한국 고유한자의 조자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Ⅱ.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의 고유성 판단 기준 설정의 필요성

1. 고유성 판단 착오의 제거

(1) 日本 國字의 固有性 判斷 誤謬 事例³⁾

1) 症

일본 국자로 논의되다가 한자로 정정된 사례로 症이 있다.

① 가. 症 (常用漢字) [しょう] [漢字の研究 和作 [解説] 病氣 徵候의 뜻을 나타낸다.⁴⁾

〈菅原義三(1990: 72)〉

나. 症 漢字 [음훈] ショウ [解説]…(전략)…『簡化字源』에서 宋代의 『文溪集』에 「症候」라고 하여⁵⁾…(후략)…〈大原 望(2014, 症)〉

①의 症은 菅原義三(1990)에서는 일본 국자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大原 望(2014)에서는 漢字로 판명하였고, 笹原宏之(2017)에서는 症을 일본 국자로 다루지 않았다. 症이 중국 자서에 실려 있지 않아서 菅原義三(1990)은 ‘病氣 徵候’의 뜻을 가지는 症을 일본 국자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漢語大詞典』에서는 症의 뜻으로 ‘症候, 病象’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大原 望(2014)은 宋代 『文溪集』의 症候를 들어 症을 한자로 판단하고 있다.

2) 喰

喰도 일본 국자로 논의되다가 한자로 정정되었다.

② 가. 喰 [大字典 國字] 먹다(くらう)의 뜻. 食과 같은 뜻. 뒤에 다시 口를 더하여 만들었다고 함.⁶⁾

〈菅原義三(1990: 15)〉

나. 喰 漢字 [음훈] サン(sen), ソン(son), くらう(먹다/마시다), はむ(먹다/마시다), なめ, くう(먹다) [解説] 国字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龍龕手鑑』에 ‘密殮音孫以飲澆飮也 鞞同’라는 것이 있음. 国

3) 어떤 한자를 일본 國字로 규정할 때 그 글자가 일본 국자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 이 글의 초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大原 望(2014)의 논의에 힘입어 종래 일본 국자로 취급하여 왔던 症과 喰이 일본 국자가 아니고 한자인 증거를 제시한다. 종래 일본 국자로 취급해 왔던 것들을 大原 望(2014)은 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로 하나를 더 들면 搾이 있다. 菅原義三(1990)과 笹原宏之(2017)에서 搾이 ‘しぼる(쥐어짜다)’의 의미를 가지는 일본 국자로 규정했으나 大原 望(2014)은 『漢語大詞典』에도 동일한 의미의 搾이 실려 있는 것을 근거로 搾이 일본 국자가 아니라 한자로 판단하였다.

4) 菅原義三, 『國字の字典』, 1990, 72, “症 (常用漢字) [しょう] [漢字の研究 和作 [解説] 病氣の徵候の意を表わす。”

5) 大原 望, 『和製漢字の辞典(2014)』, “症 漢字 [読み] ショウ [解説]…(전략)…『簡化字源』が宋代の『文溪集』に「症候」とあるのが、…(후략)…”

6) 菅原義三, op cit., 1990, 15, “喰 [大字典 國字] 食う義. 食と同義なり. 後更に口を加えて作るとある.”

字가 아니다. 『漢語大詞典』 등에서 『敦煌變文集』으로부터 인용한 것도 있음.
『中華字海』는 「音餐同餐」라 함.⁷⁾ 〈大原 望(2014, 喰)〉

②의 喰은 菅原義三(1990)과 笹原宏之(2017)에서는 일본 국자로 파악되었으나 大原 望(2014)에서는 漢字로 판단하였다. 喰이 『康熙字典』에는 실려 있지 않아 菅原義三(1990)은 ‘먹다(食う)’의 뜻을 가지는 喰을 일본 국자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大原 望(2014)은 『龍龕手鑑』과 『敦煌變文集』 등에 喰이 출현한 것을 근거로 喰을 漢字로 파악하고 있다. ②-나에서 보듯이 『龍龕手鑑』의 喰은 일본 국자로 논의된 喰과 그 의미가 동일하다.

중국의 새로운 자료가 정리되면서 일본 국자로 규정되던 症과 喰이 한자로 규명된 사례는 일본 국자의 판단 기준이 일본 국자의 고유성에 기반하지 않고 단순히 중국 자서나 운서의 등재 여부에 따라 일본 국자로 판단한 것에서 비롯된다.

(2) 韓國 固有漢字의 固有性 判斷 誤謬 事例

1) 鯨

鯨의 경우 한국 고유한자로 규정하여 왔으나 『韓國漢字語辭典』(1996)에 이르러서는 鯨이 한자로 규정된 바 있다. 鮎貝房之進(1931: 202)에서 제시했듯이 한국 문헌에서 鯨은 ‘30척이 한 선단을 이루어⁸⁾’와 ‘세 배 마다 한 선단을 이루어⁹⁾’의 문맥에서 나타난다.

鮎貝房之進(1931: 202)은 鯨이 중국 자서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한국 고유한자의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 ‘俗字’로 규정한 바 있다. 김종훈(1993: 38)에서도 鯨을 중국 자전에 실려 있지 않은 한자로 파악하여 ‘國字’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1993년에 완간된 『漢語大詞典』에는 『明史』에서 ‘宜修飭海舟, 大小相比, 或百或五十聯爲一鯨’의 용례를 채집하여 제시하고 있음은 이진식(2015: 156)에서 제시한 바 있다. 『明史』에 나오는 鯨은 한국의 鯨과 의미가 같다. 그리하여 『韓國漢字語辭典』(1996)에 이르러서는 鯨을 한자로 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2) 鯨

鯨의 경우에는 한국 고유한자가 아니라 한자일 가능성도 있다. 鯨가 중국의 자서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鮎貝房之進(1931: 202)은 鯨를 한국 고유한자로 규정하였고, 김종훈(1983: 38) 역시 鯨를 國字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鮎貝房之進(1931: 202)과 김종훈(1983: 173)은 鯨가 현대국어의 ‘거룻배’의 ‘거루’와 연관

7) 大原 望, op cit., 2014, “喰 漢字 [読み] サン ソン クラウ はむ なめ く[解説] 国字とされることがあるが、『龍龕手鑑』に「密飡音孫以飲澆飡也 鮎同」とあり、国字ではない。『漢語大詞典』などに『敦煌變文集』からの引用もあり、『中華字海』は「音餐同餐」とする”

8) 『大典通編』, 戶典, “三十隻作一鯨”

9) 『六典條例』, 工典, 舟橋司, “每三船作一鯨”

시키고 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艇와 ‘거룻배’의 관계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漢語大詞典』의 용례를 참고하여 『韓國漢字語辭典』(1996)에 이르러서는 艇를 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③ 가. 艇, 배이다.¹⁰⁾ 〈漢語大詞典〉

나. 舠, 1. 작은 배이다.¹¹⁾ 〈漢語大詞典〉

『대전통편』(1785년)에 나타난 艇舠船의 艇와 舠가 (3가)의 艇와 (3나)의 舠와 그 의미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韓國漢字語辭典』(1996)에서 艇를 한자로 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진식(2015: 156)도 『韓國漢字語辭典』(1996)의 이 같은 견해에 묵시적으로 동의했었다. 그러나 艇舠船의 이표기로 居刀船, 居舠船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고유한자 艇는 중국의 艇와는 의미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④ 가. 【居刀船 거도선】 거룻배. 선체(船體)가 가볍고 속력이 빠른, 돛을 달지 아니한 작은 배.

〈韓國漢字語辭典〉

나. 【居舠船 거도선】 “居刀船”과 같다. 〈韓國漢字語辭典〉

다. 【艇舠船 거도선】 거룻배. 또는 거룻배와 같게 만든 작은 兵船 〈韓國漢字語辭典〉

라. 여러 나라의 大·中·小의 배에 각각 鼻巨刀선이 있는데, 비거도선은 本船의 대소에 따라 만들되, 혹은 통나무[全木]로 만들기도 하여 行船할 때는 본선 안에 실었다가, 쓸 일이 있으면 곧 내려 놓는데, 우리 나라의 병선은 본디 몸이 모두 크고 또 비거도선을 배 꼬리에 달고 다니므로, 배가 다니기에 느릴 뿐 아니라, 큰 바람을 만나면 능히 구조할 수 없으며, 잡아 맨 줄이 혹 끊어지면 버리고 가게 되니,¹²⁾ 〈세종실록 1430년(세종 12) 5월 19일〉

마. 【懸居刀船 현거도선】 옛날에 쓰던 병선(兵船)의 한 가지. 〈韓國漢字語辭典〉

④-라에서는 ‘鼻巨刀’의 의미를 ‘큰 병선에 줄로 딸린 배’로 설명하고 있다. ④-마 懸居刀船의 ‘매어 달다’의 의미를 가지는 懸 역시 이를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居刀船, 居舠船, 艇舠船 등의 표기가 보여 주는 ‘거도’는 ‘收’의 의미인 ‘거두다/*거도다’의 ‘거도’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居刀船에서 출발하여 ‘배’라는 문맥 상황과 船의 영향으로 居舠船의 표기가 나타나고, 또 舠의 영향으로 艇舠船의 표기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鼻巨刀’에서 ‘鼻’는 ‘코’를 표기한 것으로 居刀船의 크기가 작은 것을 형용한 말로 생각된다. 15세기의 ‘居刀/巨刀/거도’는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거로/去櫓’의 음운 변화를 거쳐 현대 국어 ‘거룻배’로 계승된 것으로 이해된다. 李義鳳(1733~1801)의 『古今釋林』 28, 東韓譯語, 釋器 조에 ‘去櫓 本朝 俗稱小艇曰去櫓 謂不用帆櫓 用櫓來去也’의 설명이 있다.

10) 『漢語大詞典』, 艇, “船”

11) 『漢語大詞典』, 舠, “1. 小船”

12) 『世宗實錄』, 1430년(세종 12) 5월 19일, “諸國大中小船 各有鼻巨刀 隨本船大小造之 或以全木爲之 行船則載於本船中 有用輒下 本國兵船 則本皆體大 又以鼻巨刀 懸於船尾 非唯舟行遲緩 如遇大風 則不能救護 懸索或絕 棄之而去 請自今 於大船 孟船 劍船 皆置大造鼻巨刀及全木鼻巨刀各一隻 留浦則用大鼻巨刀 行船則用全木鼻巨刀 載之船上以行.”

결국 한국 고유한자 鰩는 중국의 한자 鰩와는 달리 조자 방법 상에 있어서 한국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마찬가지로 鰩船의 船 역시 중국의 한자 船와는 달리 조자 방법 상에 있어서 한국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鰩와 船가 會意의 방식으로 조자된 것이라면 한국의 鰩와 船는 형성의 방식으로 조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鰩와 船가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유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鰩船은 우리말 ‘거뿔배’에 대한 단순한 ‘음차’ 표기일 가능성도 있다.

2. 同形異義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의 조자 방식 차이

(1) 同形異義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 목록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 중에서 그 자형이 동일한 경우가 있다. ‘塙, 俵, 鑓, 魴, 鰻, 鰯,¹³⁾ 桧¹⁴⁾’ 등이 다. 그러나 이들 글자들은 자형이 같지만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는 조자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그 의미도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⑤ 同形異義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

자형	일본 국자		자형	한국 고유한자	
	훈	의미		음	의미
塙	ぬた	지명 藤塙, 沼田 ¹⁵⁾	塙	대	터
俵	はたらく	생각해서(고민해서) 일하다 ¹⁶⁾	俵	고	다짐. 다짐을 돕. 억지로 다그쳐서 확실한 대답을 받는 일.
鑓	みづかね	水銀 ¹⁷⁾	鑓	선	복자, 술을 담은 그릇. 또는 대야
魴	(ど)じょう	미꾸라지 ¹⁸⁾	魴	정	가물치
鰻	はも	鰻 갯장어	鰻	마	삼치

13) 일본 국자 鰯은 ‘からかこ, きぎ’ 등의 훈을 가지고 있다. 義義(ぎぎ)의 학명은 pelteobagrus nudiceps이다. 한국에서는 이 학명의 물고기를 ‘메기’로 부르고 있다. 한국 고유한자 鰯의 의미를 鮎貝房之進(1931: 255)에서 ‘삼치’로 제안했지만 『放事要覽』의 용례 ‘鰯魚一尾二錢’ 하나만 발견되므로 이 글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14) 桧의 경우 일본에서는 はば(강독에 인접한 협소한 토지, [菅原義三, 1990: 51 참조])를 의미하고, 한국에서는 ‘흙통’을 의미한다. 일본어 はば와 한국어 ‘흙통’ 간에는 유사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관련 근거를 말할 수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桧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15) 菅原義三, op cit., 1990, 19, “藤塙(ぬた)(지명)…(전략)…藤塙는 본래 ふじぬた라고 읽는다. …(중략)…沼田을 ぬた 혹은 にた라고 읽는다. / 藤塙(ぬた) (地名)…(전략)…藤塙は本来ふじぬたと読む…沼田をぬたあるいはにたと読む”

16) 菅原義三, op cit., 1990, 19, “俵(はたらく)…(중략)…[解説] 考えてはたらくことの意”

17) 菅原義三, op cit., 1990, 126, “鑓(みづかね) [新撰字鏡, 和字] 水銀(みづかね)과 같다. / 鑓(みづかね) [新撰字鏡, 和字] [解説] 水銀(みづかね)と同じ.”

18) 菅原義三, op cit., 1990, 143, “魴(じょう) 土魴(どじょう)이다. [解説] 鰻(미꾸라지)이다. / 魴(じょう) 土魴(どじょう) [解説] 鰻(どじょう)のこと”

또한 ‘垆, 鑪, 𡩺’ 등의 경우에는 중국의 『中華字解』에서 중국에서 사용된 예를 소개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다르다. 다음에서 이러한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한국 고유한자의 경우에는 『한국한자어사전』에서 설명한 것을 제시한 것이다.

(2) 垆의 조자 방식

일본 국자 垆에 대해 ‘菅原義三(1990), 大原 望(2014), 笹原宏之(2017)’ 등은 모두 沼田의 의미인 垆(ぬた)의 조자 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笹原宏之(2017)는 沼田의 의미를 ‘늪을 밭으로 개간한 것’¹⁹⁾으로 풀이하고 있다. 垆를 구성한 代와 土의 의미 결합만으로는 沼田의 의미를 도출할 수 없고, 沼田의 의미를 가진 代田의 용례를 찾지 못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垆가 가진 沼田의 의미는 代와 土의 의미 결합 작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일본어 ぬた를 표기한 일본 국자 辻로 확인될 수 있다. 辻의 경우 彳와 土의 의미 결합으로 沼田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국자 垆는 ‘대체한 땅’의 의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고유한자 垆는 ‘터’의 의미인데, 垆에 대해 ‘戶代(太祖家屋許與文記) 대 家垆(대전통편)’ 등의 충실한 자료를 제시했으면서도 鮎貝房之進(1931)은 垆가 代土에서 온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한국한자어사전』에서 垆를 代에 意符 土가 첨가된 형성자로 파악한 바 있으며 또, 이진식(2009-: 242)에서도 垆를 代/ 彳[장식]에서 意符 土가 첨가된 形聲字로 파악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垆가 있다. 『中華字解』에서 원나라 시기 지명 落垆村에 사용된 垆²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垆가 일본 국자나 한국 고유한자의 垆와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는 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徇의 조자 방식

일본 국자 徇에 대해서 笹原宏之(2017)는 人과 考가 합한 것으로 頭腦労働을 強調해서 표현한 것²¹⁾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人과 考의 의미를 합해서는 ‘두뇌 노동’의 의미를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육체 노동’을 뜻하는 일본 국자 働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人과 考의 의미를 합해서 ‘두뇌 노동’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 고유한자 徇의 경우 『대명물지해』에 처음으로 ‘白徇是遣²²⁾/畚다답이건’으로 나타나는데 ‘白徇是遣’은 ‘아뢰어 다짐함이고’의 뜻이다. 徇는 徇音의 생략 표기인데 『吏文輯覽』 2에서 徇音의 의미를 供招라 하였다.²³⁾ 『한국한자어사전』에서는 供招를 供辭와 같은 말로 파악하고, 그 의미를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말’로 제시하고 있고 있다. 『儒胥必知』의 彙編에서 徇音을 ‘다짐을 받다’의 ‘다짐²⁴⁾’으로 제시한 것도 이리

19) 笹原宏之, 『ビジュアル国字字典』, 2017, 260, “늪을 밭으로 改良한 것을 沼田이라 한다. / 沼を田に改良した沼田のことだ.”

20) 『中華字解』, 垆, “音代 地名用字 落垆村 見元史河渠志”

21) 笹原宏之, op cit., 2017, 123, “徇는 人과 考가 합한 것인데, 肉体労働은 없이 頭腦労働을 強調해서 表現했던 것일 것이다. / 徇は人と考の合わせなので肉体労働ではなく頭腦労働を強調して表現したものでしょう。”

22) 『大明律』 1, 名例律, 八議, 犯罪事發在逃, 直解, “在逃人是沙 爲首如 白徇是遣”

23) 『吏文輯覽』 2, “所供 供即供招 國俗所謂徇音也”

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倭音의 이러한 의미를 고려하면, 倭는 人과 考의 會意字로 倭의 의미는 ‘사람의 행위를 조사·고찰한 것’으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파악된다.

(4) 鑞의 조자 방식

일본 국자 鑞에 대하여 ‘菅原義三(1990), 大原 望(2014), 笹原宏之(2017)’ 등은 모두 鑞이 水銀(みずかね)의 의미임을 말하였으나 그 조자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鑞에 대하여 『天治本新撰字鏡』의 「小学篇」에서 다음과 같은 주석을 제공하여 주목된다.

⑥ [金水鑞 [들은 水金이다.]²⁵⁾ 〈天治本新撰字鏡 金部第六十八 小学篇〉

일본어 みずかね에서 みず는 水의 뜻이고,かね는 ‘금속’의 뜻이므로 일본어 みずかね와 표기 상 직접 대응되는 것은 ⑥의 [金水]로 생각된다. 결국 ‘みず[水]와 ‘かね[金]’를 [金水]로 조자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어 ‘みずかね([金水])’는 ‘액체 상태의 금속’의 뜻으로 水銀의 특성을 지칭한 것이라면 한자어 水銀은 ‘액체 상태의 銀’의 뜻으로 水銀의 특성을 지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어 ‘みずかね[金水]’은 水銀이 상온에서 액체 상태에 있는 특성을 지칭한 것이라면 한자어 水銀은 ‘수은의 액체 상태’와 ‘銀과 동일한 색깔’ 특성을 동시에 지칭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金水]를 金과 水의 의미를 조합한 회의자로 파악하면 이 회의자는 ‘액체 상태의 금속’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水銀의 다양한 활용도를 고려하면 일본 국자 鑞의 조자 방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水銀은 연금술을 위한 중요한 물질이며, 불상, 의약품, 화장품 제작 등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鑞은 금속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의 의미를 金과 善으로 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인들이 水銀을 고려에 제공한 사실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²⁶⁾ 또 『續日本紀』 권34의 寶龜 8년(777) 5월 23일 조의 기사에는 渤海 사신 史都蒙에게 귀국 선물로 水銀을 주었다는 기사²⁷⁾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이 水銀 생산국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水銀을 뜻하는 일본 국자 [金水]와 鑞의 탄생 배경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일본 국자 鑞은 金과 善의 회의자로 추정된다.

한국 고유한자 鑞은 『고려사』 卷54 志8 五行2 金조의 高宗 十年 三月 기사 내용에 一水鑞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一水鑞의 鑞은 ‘甁[瓶]’은 아니고 액체를 담는 ‘대야’로 추정된다. 『同文類解』에 나오는 ‘세슈대야²⁸⁾’의 예를 볼 때, ‘대야’의 기본적 의미는 ‘액체를 담는 그릇’의 의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대야’는 ‘술을 담는 그릇’이나 ‘술을 계량하는 단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²⁹⁾ 한편 20세기 초의 『자전석요』에

24) 『儒賢必知』, 彙編, “倭音 다짐”

25) 『天治本新撰字鏡』, 金部第六十八, 小学篇, “金水鑞 [二水金]”

26) 일본인들이 高麗에 水銀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고려사』의 世家 文宗 23년(1073) 조, 宣宗 원년(1084) 조 등에 있다.

27) 『續日本紀』 권34 777년 5월 23일, “又緣都蒙請 加附黃金小一百兩 水銀大一百兩 金漆一缶 漆一岳 海石榴油一缶 水精念珠四貫 檳榔扇十枝”

28) 『同文類解』, 下: 15b, “洗臉盆 세슈대야”

이르러서는 鑊의 훈은 ‘대야’ 대신 ‘복각’로 제시된다.³⁰⁾ 『1737年金啓鐸書簡³¹⁾』에는 ‘燒酒二鑊’의 표현이 있지만 1755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仁嬪上諡封園都監儀軌』에는 ‘燒酒 二 卜子’로 나타나기도 한다.³²⁾ 그러나 鑊의 조자 방식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鮎貝房之進(1931: 262)이 『雅言覺非』의 어떤 본에 실려 있는 鑊에 대한 주석 ‘鑊은 반드시 鑊을 써야 한다’의 주장³³⁾을 소개하고 있으나 鑊과 鑊의 이체자 관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漢語大詞典』에 따르면 鑊은 『龍龕手鑑』에 음이 ‘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淮北 地區에서 사용되는 割麥刀(한국의 낫과 유사한 형태)라고 한다.³⁴⁾ 그런데 한중일 삼국의 鑊이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한중일 삼국의 鑊이 각기 서로 다른 조자의 방식으로 형성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³⁵⁾

(5) 魴의 조자 방식

일본 국자 魴의 경우 土魴(どじょう)으로 사용된다. 일본어 ‘どじょう’는 ‘미꾸라지’의 뜻이다. 笹原宏之(2017: 91)에 따르면 ‘미꾸라지’를 뜻하는 일본 국자에는 ‘魚罔, [魚於]’ 등이 더 있다. 笹原宏之(2017: 91)는 [魚罔]의 조자법에 대해서 泥의 약자인 尼와 魚가 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魴의 조자법에 대해서는 ‘菅原義三(1990), 大原 望(2014), 笹原宏之(2017)’ 등이 모두 魴의 조자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고유한자 魴의 경우 『晝永篇』에서 魴의 의미를 蠡魚로 풀이하였다.³⁶⁾ 『東醫寶鑑』湯液篇 卷之二에는 蠡魚가 ‘가모티’로 되어 있다. ‘가모티’는 현대에는 ‘가물치’인데 鮎貝房之進(1931: 194)는 ‘가물치’의 ‘가물’이 ‘검다’에서 온 것임을 말하였으나 魴의 조자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魴의 조자 방식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다음 자료에서 魴을 형성한 조자 방식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 ⑦ 가. 苧 秀魚 釘魚 綿魚 鯽魚 白魚 葦魚 蟹. 『신증』 蓴 鱸魚 〈新增東國輿地勝覽 咸悅縣 土產〉
나. 咸悅 物產 苧蓴 秀魚 魴魚 綿魚 蟹 鯽魚 白魚 葦魚 鱸魚 〈攷事新書 卷1 八道程路〉
다. 咸悅使隨至 米四斗・租一石 丁魚 十冬音 鹽小魚 五冬音 蝦醢 四升 載來 〈瑣尾錄 甲午日錄〉

29) 『雅言覺非』, 卷之二, “鑊者, 量酒之器, 吾東之造字也. 今郡縣餽贈, 以酒五盞謂之一鑊. 【中國無此字】方言謂之大也. 罍器亦謂之大也, 唯大小不同耳. 按匱者酒器, 亦稱罍器. 然則去鑊從匱, 不害爲書同文矣. / 鑊은 술을 계량하는 그릇이다. 우리 나라에서 만든 글자이다 지금 군현에서는 선물할 때에 술 다섯 잔을 한 鑊(중국어에는 이 글자가 없다. 방언으로는 ‘대야’라고 한다. 罍器도 또한 대야라고 한다. 다만 큰 것과 작은 것의 다름만 있을 뿐이다. 匱는 酒器인데 罍器라고 칭한다. 그러면 鑊을 버리고 匱를 따른다고 해도 글을 쓰는 데에 해롭지 않아 같은 글이 된다. 여기의 번역은 김종권 역주(1976)을 참고한 것임”

30) 『字典釋要』, 鑊, “鮮 量酒之器 복자 선”

31) 이 자료는 『고문서집성 19- 하회 풍산유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에 실려 있다.

32)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http://kyu.snu.ac.kr/center/inspection/ins_view.jsp?uci=GK13493_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雅言覺非』 卷之二의 鑊을 설명하는 항목에서 ‘不害爲書同文矣’의 구절 뒤에 ‘鑊當作鑊 一本無此註’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鮎貝房之進(1931: 262)은 雅言覺非 대신에 正言覺非로 출전명을 제시하고 있다.

34) 『漢語大詞典』, 鑊, “《龍龕手鑑》 音善 淮北地區用的割麥刀 后来燃軍仿照它制成一種武器 《燃軍歌謠·等死不如來起反》: “竹竿子能擋西瓜炮, 齊頭鑊鎗把妖兵趕.”

35) 『倭語類解』 下: 14b에 실려 있는 ‘鑊 다야 선’의 의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6) 『晝永篇』, 下, “蠡魚稱魴(音명)”

十一月廿二日)

라. 丁魚 江門에서 나는데 곧 小水魚이다.³⁷⁾ 〈惺所覆瓿藁 卷2 說部 5 屠門大嚼〉

마. 고무래 「명사」 『농업』 곡식을 그러모으고 퍼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긁어 모으는 데에 쓰는 ‘丁’ 자 모양의 기구. 장방형이나 반달형 또는 사다리꼴의 널조각에 긴 자루를 박아 만든다. ≡노파04(耨耙)·목괘(木机) 「1」·파로(把撈). 〈표준국어대사전〉

⑦-가의 釘魚는 ⑦-나의 釘魚를 고려할 때, 釘魚의 오자일 가능성이 있다. 金과 魚의 자형 상 유사성에 기인하여 오자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⑦-다의 咸悅使는 함열현의 현령을 말하므로, (7다)의 丁魚는 ⑦-가의 釘魚와 ⑦-나의 釘魚를 가리키는 것이다. 釘의 조자 방식은 丁에다가 魚 符를 첨가한 것³⁸⁾으로 볼 수 있고 더군다나 釘이 중국 자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⑦-마는 丁의 훈이 ‘고무래’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고무래’는 ‘*고물+개’ 정도의 구성에서 온 것이므로 丁과 釘의 丁이 ‘*가물’ 정도를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⑦-라에 나오는 小水魚의 의미가 정확히 밝혀져야 하며, ‘*가물’과 ‘*고물’의 음운론적 변화 관계도 더 고찰될 필요가 있다.

(6) 鱸의 조자 방식

일본 국자 鱸는 はも(갯장어)의 의미를 가진다. ‘菅原義三(1990: 152), 大原 望(2014), 笹原宏之(2017: 62)’ 등에서 모두 鱸(はも)가 漢語에서는 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훈몽자회』 上: 11a의 ‘鱸 가모 티 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漢語 鱸는 ‘가물치’의 뜻이다. 한편 ‘菅原義三(1990: 152), 大原 望(2014), 笹原宏之(2017)’ 등에서 모두 鱸의 조자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笹原宏之(2017: 62)의 경우, はむ(はも)의 뜻을 가지는 일본 국자 [魚長], [魚+比/車] 등을 더 제시하고, [魚長]의 長이 はも(갯장어)의 가늘고 긴 체형을 지칭한 것으로 말하였다.

한국 고유한자 鱸에 대해 鮎貝房之進(1931: 262)은 鱸의 의미와 조자 방식을 정확하게 해독하였다. 麻의 훈인 ‘삼’을 활용하여 鱸가 ‘삼치’의 의미이며, 『신증동국여지승람』 結成縣 土山 조에는 麻魚로 나오나 『結成縣邑誌』에는 鱸魚로 나오는 것을 근거로 차자 표기 麻에 意符 魚를 첨가하여 鱸의 자형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大原 望(2014)은 『中華字海』를 인용하여 중국에도 鱸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中華字海』에서 李石의 『続博物志』에 사용되었으며 ‘音麻. 同蜆’이라고 한다.³⁹⁾ 蜆은 ‘큰 조개’를 뜻하는 것이므로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 사용된 鱸와 그 의미가 다른 것이다.

37) 『惺所覆瓿藁』, 卷26, 說部 5, 屠門大嚼, “丁魚 産于江門 卽小水魚也”

38) 이진식(2009ㄴ: 166)에서 ‘鯉魚: 連魚, 鯪: 秋魚, 魴魚: 亡魚, 烏鯪魚: 烏賊魚, 鱸魚: 盧魚, 魴: 方魚, 鯪: 節魚, 魴魚: 沙魚’ 등으로 제시했다.

39) 그러나 필자는 『中華字海』(2000)에서 鱸를 찾을 수 없었다. 또 李石의 『続博物志』에서도 鱸를 찾을 수 없었다.

3.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 수수 관계 인식

(1) 논의의 범위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에서 자형이 동일하면서 그 의미도 동일한 것으로 ‘棕, 獐, [金瓮], 鎰, 鰯, 腺, 臍’ 등이 있다. ‘棕, 獐, [金瓮], 鎰’ 등에서 ‘棕, 獐, [金瓮]’ 등은 한국 고유한자이고, 鎰는 이체자이다. 이들은 고대의 이른 시기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鰯, 腺, 臍’ 등은 일본 국자인데 근대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유입된 것이다.

일본 국자 畠(はたけ)의 경우에도 일부 연구에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것으로 언급하기도 하나⁴⁰⁾ 「나주북암리 목간 5호(561)」의 ‘水田 白田 麥田’에서 白田은 한 글자가 아니라 白田의 두 글자로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白田이 확실하게 한 글자로 파악되는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白과 田이 합자되어 畠이 조자된 것은 일본 국자의 특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火本]의 경우에도 일본 자료에만 발견되기 때문에 [火本]을 한국 고유한자로 파악하는 것을 유보하고자 한다. 鮎貝房之進(1931: 125-126)에 따르면 경상도 창녕의 고지명인 比自火가 『일본서기』의 神功紀 조에는 比自[火本]로 나타나고, 大原 望(2014)에 따르면 일본의 答[火本] 씨는 百濟人 答[火本]의 후손들이라고 한다.

(2) 日本에 유입된 韓國 固有漢字

1) 棕

稻葉岩吉(1936: 1-50)는 중국 사서 『翰苑』에 나오는 백제의 관부인 棕部에 대해 논의하였고, 棕이 ‘창고’의 의미임을 논의하였다. 棕은 일본과 한국의 목간 자료에서 모두 사용되었는데,⁴¹⁾ 한국의 목간 자료가 일본의 목간 자료보다 연대가 앞서므로 그 동안의 관련 연구에서 棕은 백제를 통해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리하여 일본 국자를 논의한 ‘菅原義三(1990: 152), 大原 望(2014), 笹原宏之(2017)’ 등에서도 棕을 일본 국자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笹原宏之(2007: 211)에서는 京에 木偏이 첨가되어 棕이 조자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木 偏이 첨가된 것을 고려하면 棕이 조자된 기저는 중국 사서인 『三國志』 魏志 東夷傳의 고구려 조에 나오는 桴京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京에 木 偏이 첨가될 수 있었던 기저는 桴라고 생각된다.

稻葉岩吉(1936: 18-21)는 桴京을 ‘창고’를 뜻하는 일본어 くら와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桴京을 ㄱ키ョウ의 寫音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 ‘창고’를 뜻하는 말로는 首乙이 있다. 『삼국사기』 권37 한산주 조에 ‘原谷縣(一云首乙呑)’이 나오는데, 고구려어呑이 谷에 대응되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原

40) 권인한, 한국 고유한자의 생성과 전개, 2018, 22쪽.

41) 권인한(2018: 21)에 따르면 6세기 후반 유물로 추정되는 능산리사지 300호 목간에 仲棕이 있고, 7세기 초반 유물로 추정되는 부여 쌍북리 280-5번지 출토 목간에 外棕 〇鐵이 있고, 8세기 유물인 경주 황남동 281호 목간에 ‘下棕 仲棕’이 있고 8-9세기 후반 유물로 추정되는 안압지 출토 벼루 목서에 棕司이 있다고 한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7세기 후반 유물로 추정되는 西河原森ノ内遺跡木簡 2호 목간에 ‘棕植傳之 我持往稻者’이 있다고 한다.

과 首乙이 대응되는데 한어 原은 ‘곳집’을 뜻하므로⁴²⁾ ‘창고’를 뜻하는 고구려어는 ‘술/首乙’ 정도가 된다.

2) 獬

한국에서 전래된 獬를 일본 국자로 파악한 설명 자료와 한국의 글자로 설명한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⑧ 가. 獬(ふろき) [重修本草綱目啓蒙] 일본에서는 산출되지 않음. 朝鮮의 名物이다. [해설] 黑貂(くろてん, 검은담비)의 古名⁴³⁾ <菅原義三(1990: 15)>

나. 獬 朝鮮國字 [읽기] くろひょう(黑豹) [解説] 『漢韓最新理想玉篇』에 ‘韓國國字이다. 貂의 뜻이다’라고 함. 일본에서는 산출되지 않으므로 國字가 될 가능성은 낮다.⁴⁴⁾ <大原 望(2014, 獬)>

菅原義三(1990)는 獬를 일본 국자로 판단하였으나 大原 望(2014)은 獬이 일본 산물이 아니므로 일본 국자가 아닐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1488년에 조선에 사신으로 왔던 董越은 『朝鮮賦』에서 ‘토인들은 貂를 獬이라 한다’⁴⁵⁾하여 獬가 가지는 한국 고유성을 언급하고 있다.

鮎貝房之進(1931: 218)은 『名物紀略』의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獬를 형성(해성) 造字로 파악한 바 있다.

⑨ 가. 貂鼠 豆서 俗言 獬皮 돈피 字書에 보이지 않는다. 털이 깊은 것을 취하여 뜻을 삼고 만든 글자이다. 크기는 獬와 같으나 꼬리의 (털은) 거칠다. 털의 길이는 1寸쯤이다. 자흑색이다. 가죽으로 ‘갓옷’을 만든다. 바람을 맞아도 따뜻하고 물에 담가도 젖지 않는다. 눈을 맞아도 약해지지 않는다.⁴⁶⁾ <名物紀略, 走獸>

나. 趙克寬과 韓昌이 아뢰기를, “평안도 백성은 勞苦함이 다른 곳의 갑절이나 되오니, 다른 도(道)에서 나지 않는 담비가죽(獬鼠皮)과 인삼(人蔘) 외의 다른 공물(貢物)은 전부 면제하게 하소서.”⁴⁷⁾ <世宗實錄 1447년(세종 29) 7월 27일>

다. 貂 돈피 豆 俗呼貂鼠 <훈몽자회 상: 10a>

⑨-가에서는 獬皮로 만든 가죽 옷은 ‘바람, 물, 눈’ 등에도 강하고 따뜻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것은 獬皮가 敦皮(두터운 가죽)에서 왔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⑨-나의 獬鼠皮는 獬가 ‘담비/貂’의 의미는 아님

42) 『康熙字典』, 原, “【集韻】居卿切 音京【廣雅】倉也”

43) 菅原義三, op cit., 1990, 15, “獬(ふろき) [重修本草綱目啓蒙] 和産なし. 朝鮮の名物とある [해설] 黑貂(くろてん) の 古名.”

44) 大原 望, op cit., 2014, “獬 朝鮮國字 [読み] くろひょう [解説] 『漢韓最新理想玉篇』に「韓國國字貂也」とある. 和産のないものに國字を作る可能性は低く”

45) 『朝鮮賦』 “土人名貂爲獬”

46) 『名物紀略』, 走獸, “鼠 豆서 俗言 獬皮 돈피 而字書不見 意其取毛深而作字也 大如獬而尾粗 其毛深村許 紫黑色 用皮爲裘 得風更暖 着水不滿 得雪即消”

47) 『世宗實錄』 1447년(세종 29) 7월 27일, “趙克寬及韓昌等又曰: ”平安之民 勞苦倍他. 他道不産獬鼠皮人蔘外 其餘貢物, 全免”

을 시사해 준다. 獾鼠 전체가 ‘담비’의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㉑-다에서는 ‘돈피’가, ㉑-가에서는 獾皮가 貂(담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鮎貝房之進(1931: 220)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담비’의 가죽이 명품이므로 ‘담비 가죽’이 ‘담비’를 가리킨 것으로 이해된다. 敦皮에 意符 冫이 첨가되었다기보다는 敦鼠에서 鼠가 가지는 의미의 압력으로 형성의 방법에 따라 意符 冫이 첨가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鮎貝房之進(1931: 218-220)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3) [金甌]

일본에서 사용된 [金甌]과 한국에서 사용된 [金甌]의 의미가 유사하여 주목된다.

- ⑩ 가. [金甌] [ほとぎ] [新撰字鏡 和字] [解説] 缶(ほとぎ, 장군)과 같다. 배가 크고 주둥이가 작아 술이나 물을 담는 토기이다⁴⁸⁾ (菅原義三(1990: 15))
- 나. [金甌] 保止支 (天治本 新撰字鏡, 金部六十八 以下出自小學篇)
- 다. 三寶 內 甌(金甌) 一 入 (傳密陽小臺里寺址堂塔造成記(1109년))
- 라. [土甌] [읽기] ほとぎ [解説] 『享和本新撰字鏡』에 ‘同亡反 甌也 孟也 保止支’라고 있음. 缶(ほとぎ)의 뜻인 国字라는 설명이 있음. 『中華字海』에 ‘音은 五 뜻은 미상, 《篇海》에 보인다’라고 함. 国字가 아니다.⁴⁹⁾ (大原 望(2014, [土甌])

[金甌]의 의미를 일본에서는 ほと기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ほと기는 ‘배가 크고 주둥이가 작아 술이나 물을 담는 토기’라고 ㉑-가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한국 [金甌]의 의미를 이견식(2015: 160)에서는 ‘놋쇠로 만든 쇠항아리(독)’라 파악하였는데 이는 甌에다 意符 金이 형성의 방식으로 첨가되어 甌(金甌)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한국의 ‘항아리나 독’ 역시 일본의 ほと기와 그 형태와 구조가 유사하다. 따라서 일본의 [金甌]과 한국의 [金甌]은 그 의미가 유사하다. 그러나 ㉑-가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金甌]은 ‘토기 제품’이나 한국의 [金甌]은 ‘청동 제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笹原宏之(2017: 228)은 ㉑-라의 [土甌](ほとぎ)를 ‘토기 제품’으로 파악하고 ㉑-가의 [金甌]은 ‘금속 제품’으로 파악하고 있다. 笹原宏之(2017: 228)의 견해를 따른다면 일본과 한국의 [金甌]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 한자이다

㉑-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土甌]과 동일한 자형이 중국의 『篇海』에 출현하는 것에 근거하여 大原 望(2014)에서 일본 국자 [土甌]을 국자가 아닌 것으로 단정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土甌]과 중국의 [土甌]가 의미 측면에서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金甌]은 901년에 성립된 『新撰字鏡』에 출현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金甌]은 일본보다 200 년이나

48) 菅原義三, op cit., 1990, 15, “[金甌] [ほとぎ] [新撰字鏡 和字] [解説] 缶(ほとぎ)と同じ 胴が太く口の小さい 酒や水を入れた 土器。”

49) ‘大原 望, op cit., 2014, “[土甌] [読み] ほとぎ [解説] 『享和本新撰字鏡』に「同亡反甌也 孟也 保止支」とあり、「缶(ほとぎ)」の意の国字とする説がある。『中華字海』に「音五義未詳。見《篇海》」とある。国字ではない。”

늦은 자료인 『傳密陽小臺里寺址堂塔造成記(1109년)』에 출현하여 한국으로부터 [金瓮]이 일본에 전래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金瓮]의 의미를 ‘청동 제품’의 경우에만 사용했으나 일본에서는 ‘토기 제품’이나 ‘청동 제품’의 구분 없이 ‘ほとぎ’를 사용했고 한국의 경우 [金瓮]이 형성의 방법으로 조자되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金瓮]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4) 이체자⁵⁰⁾ 鎰

한어에서 鎰⁵¹⁾은 명수사로 쓰이는 글자이다. 그런데 『龍龕手鑑』에서 ‘자물쇠’를 뜻하는 鑰의 주석으로 鎰을 鑰의 俗字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의 자료에서는 鎰이 ‘かぎ(열쇠)’로 쓰인 용례가 있고, 한국에서는 鎰이 ‘자물쇠’로 쓰인 용례가 있기 때문이다. 鎰이 나타나는 일본 자료와 한국 자료 모두 윤선태(2006: 286-291)를 참고하여 다음에 제시한다.

- ⑪ 가. 器殿鎰 〈열쇠부찰목간 平城京 左京三條二坊八坪 二條大路濠狀遺構(南)에서 출토〉
 나. (앞면) 東殿門鎰 〈열쇠부찰목간 平城京 左京三條二坊八坪 二條大路濠狀遺構(南)에서 출토〉
 (뒷면) 東門鎰 〈열쇠부찰목간 平城京 左京三條二坊八坪 二條大路濠狀遺構(南)에서 출토〉
- ⑫ 가. 舍零閤(閤?)鎰 〈안압지출토 자물쇠〉 東宮衛鎰 〈안압지출토 자물쇠〉
 나. (앞) 策事門思易門金 〈안압지 213번 목간〉
 (뒤) 策事門思易門金 〈안압지 213번 목간〉

윤선태(2006: 289-290)에 따르면 ⑪-가의 鎰은 ‘열쇠’의 뜻으로 쓰였고, ⑪-나는 ‘자물쇠’의 뜻으로 쓰였다고 한다. 또 ‘열쇠’의 뜻은 ‘匙’로도 표기하였다고 한다. 이에 반해서 윤선태(2006: 286-297)는 한국에서는 ⑫-가처럼 鎰은 ‘자물쇠’의 뜻으로 쓰였고, ‘열쇠’는 ⑫-나처럼 ‘金/쇠’로 표기했다고 한다. 고려 시대 관직인 司鑰이 ‘열쇠’와 ‘자물쇠’에 관한 일을 맡아 본 사실을 고려하면 일본에서 ‘자물쇠’를 뜻하는 鎰을 ‘열쇠’의 뜻에까지 확대하여 사용한 사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윤선태(2006: 290)는 ‘자물쇠’를 뜻하는 鎰을 신라에서 만든 글자라고 하였으나 주장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龍龕手鑑』의 자료에 근거하여 鎰을 鑰의 이체자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3) 韓國에 유입된 日本 國字

1910년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한 사건 전후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긴밀한 문화 접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 접촉의 결과 일본 국자가 다량으로 한국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자료는 이러

50) 帖은 일본과 한국 모두 그 고유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 모두에서 帖의 조자 방식을 설명해 내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일본 국자 帖과 한국 고유한자 帖의 의미가 유사하여 일본 국자 帖과 한국 고유한자 帖은 모종의 수수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帖은 帖의 이체자일 가능성이 있다.

51) 『漢韓大辭典』, 鎰, “一. 명수사. 무게 단위. 20냥(兩). 일설에는, 24냥. 二. 쌀 1되[升]의 24분의 1. 《集韻, 質韻》 鎰, 米謂二十四分升之一.”

한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⑬ 가. 【問】 ‘峠, 畑, 畠, 働’와 같은 글자들이 지금에 안 쓰이는데, 일본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式 漢字는 없습니까?(신당동 임근)

나. 【答】 지금 안 쓰이는 것에 ‘厓, 磨, 躰, 鱈, 嘶, 喰’ 등이 있고 지금 더러 쓰이는 것에 ‘癰, 呌, 込, 粍, 鰯’ 등이 있고 흔히 쓰이는 것에 ‘搾, 腺, 樺’ 등이 있습니다 이상은 모두 왜글자인데 그런 따위가 약 1백 40자 있습니다 우리式 글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것에 ‘畚, 堡, 帖, 嫗’ 등이 있고 그 밖에도 ‘拷, 裸 및 火 변에 𤇗, 土 變에 同, 火 變에 甬’ 등 약 80자 가량 있습니다 여기에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漢字가 아니어서 흔히 쓰이는 것이 아니면 活字가 없습니다. 왜글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덧붙여 둡니다마는 ‘搾, 腺’ 따위는 당분간 어쩔 수 없겠지만 구태여 쓸 것이 없습니다. 呌은 ‘가마’나 ‘가마니’로 粍는 ‘벼’로 鰯은 ‘멸치’로 써야 합니다. <경향신문 1962년 3월 27일 韓·倭式漢字>

⑬-나는 ‘峠, 畑, 畠, 働, 厓, 磨, 躰, 鱈, 嘶, 呌, 粍, 鰯, 込, 腺’ 등의 일본 국자가 한국에서 쓰였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⁵²⁾ 樺는 한자로 ‘菅原義三(1990), 大原 望(2014), 笹原宏之(2017)’ 등에서 일본의 국자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膝의 오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⑬-나에서 畠를 일본 국자로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나주북암리 목간 5호(561)」의 白田이 한 글자로 증명이 된다면 畠은 고대 시기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글자가 된다.⁵³⁾

20세기 초의 일간 신문이나 잡지류에서 ‘峠, 畑, 働, 厓, 鱈, 呌, 粍, 込, 鰯, 腺, 樺’ 등이 한국에서 사용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⁵⁴⁾

⑭ 가. 元谷面과 陽城面 境界인 峠에 至하자 <동아일보 1920년 7월 23일 3면 今日公判開廷되는 安城事件豫審決定書>

나. 畑의 地目을 變換하여 畛으로할 만한 者<동아일보 1921년 4월 1일 4면 最大急務인 産業開發>

다. 朴約翰君 獨唱이 有한 後來賓 鄭建常君은 “働하라” 金斗變君은 깨끗스니 일하자 <동아일보 1920년 9월 2일 4면 勞農青年會創立會>

52) ⑬-나에서 일본 국자로 제시한 것들 중에는 한자로 규정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일본 국자로 제시된 것들 중에 ‘喰, 癰, 搾’ 등은 한자이다. ‘喰, 搾’ 등이 한자임은 앞의 장에서 설명하였고, 癰의 경우 ‘菅原義三(1990: 73), 大原 望(2014), 笹原宏之(2017: 131)’ 등의 연구에서 일본 국자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菅原義三(1990: 73)에서 癰의 음을 ‘しゃく’로 제시하고 ‘흉부에 통증을 발생시켜서 경련을 일으키는 일종의 병기 / 胸部にさし込みを生じて痙攣を起こす一種の病氣’로 설명하고 있다. 癰이 훈을 가지지 못하고 음만을 가지는 점에서 癰은 일본 국자가 아니라 漢字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체자 사전(<http://140.111.1.40/yitib/irb/irb02811.htm>)에서 癰을 ‘中醫病名 疳積俗寫為疳癰’로 설명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1822년(순조 22) 5월 23일 기사에 素患疳癰가 나타나는 것도 癰이 한자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53) 어떤 심사자는 “白田은 우측 행의 ‘溼’자와 같은 크기로 서사된 습字일 뿐만 아니라, 그 훈의 ‘하타(-케)’는 한국어 ‘밭’의 차용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고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글자로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54) 잡지 자료의 경우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서 검색한 것이고 일간 신문의 경우에는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http://dna.naver.com>)에서 검색한 것이다.

- 라. 梃=男女直履의 意 〈동아일보 1939년 9월 3일 6면 主要 계다의 名稱과 取引單位〉
- 마. 대구(鱈) 一尾에 都賣時價로 今月十日 〈동아일보 1925년 12월 15일, 4면 馬山魚市閑散〉
- 바. 繩, 叭, 筵 六五 八二一 〈동아일보 1921년 2월 24일 2면 中旬鮮鐵在貨〉
- 사. 原料인 粉이 二三厘나 昂騰함을 不拘하고 玄米는 引續下押狀態를 持續함은 〈동아일보 1920년 9월 13일 2면 京城正米 將來樂觀〉
- 아. 證券信託拂込 京城證券信託會社第一回株式拂込 一株에 對하여 十圓은 二月부터 四月까지 徵收한다는대 〈동아일보 1921년 3월 2일 證券信託拂込〉
- 자. 今番大會는 以前과 달나 前津近海岸에서 豊富히 產出하는 鰯(정어리)기름 팔 일에 對하여 〈동아일보 1926년 6월 15일 4면 洪原勞組大會 十五日에 開催〉
- 차. 맛참내 사십사개소 가운데에 멸치(鰯)를 보호할 곳과 〈동아일보 1920년 9월 19일 3면 問題 이던 公家漁場〉
- ⑮ 가. 腺病이 有한 小兒는 無論何病하고 均易犯染이니 〈서우 제6호 家政學(續) 譯述者 會員 金明濬, 1907년 5월 1일〉
- 다. 例鰾齒, 舌 食道 胃 腸 肝, 脾 相倚消化系統 〈서북학회월보 제19호 1910년 1월 1일〉

⑭의 일본 국자들은 한자나 우리말을 대신하여 사용된 것들이다.

⑭-가의 峠는 일본어 ‘とうげ(고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개’나 ‘재’를 뜻하는 ‘峴, 峙, 岾’ 등을 대신하여 사용된 것이다. ⑭-나인 畑은 일본어 ‘はたけ(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밭’을 뜻하는 한자 田을 대신하여 사용한 것이다. ⑭-다의 働는 일본어 ‘はたらく(일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말 ‘일하다’를 대신하여 사용된 것이다. ⑭-라의 梃은 일본어 ‘まさめ(나무의 곧은 결)’를 뜻하는 것이며, ⑭-마의 鱈는 일본어 ‘たら(大口魚)’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말 ‘대구’를 대신하여 사용된 것이다. ⑭-바의 叭는 일본어 ‘かます(가마니)’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말 ‘가마니’를 대신하여 사용한 것이다. ⑭-사의 粉는 일본어 ‘もみ(벼)’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말 ‘벼’를 대신하여 사용한 것이다. ⑭-아의 込는 일본어 ‘こめる(속에 담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자어 拂入의 入을 일본 국자 込으로 대체하여 사용한 경우이다. ⑭-자의 鰯은 일본어 ‘いわし(정어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말 ‘정어리’를 대신하여 사용된 것이다.

한편 ⑭-차에서 보는 것처럼 鰯은 우리말 ‘멸치’를 대신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 국자 鰯을 ‘멸치’로 대응시킨 것은 ‘정어리’와 ‘멸치’의 생김새가 유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혼동을 보여 준 것으로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의 鰯節酒盜辨證說 조를 들 수 있다.

⑯ 鰯字는 정어리이다.[속훈은 멸어(멸치)이다 55] 〈五洲衍文長箋散稿 鰯節酒盜辨證說〉

‘정어리’는 청어목(Clupeiformes)의 청어과(Clupeidae)에 속하고 ‘멸치’는 청어목(Clupeiformes) 멸치과(Engraulidae)에 속한다. 따라서 ‘정어리’와 ‘멸치’는 다른 종이다.

55) 『五洲衍文長箋散稿』, 鰯節酒盜辨證說, “鰯字 即鰯【俗訓蔑魚】也”

⑮-가의 腺은 음이 센이고, 그 의미는 ‘분비샘’이라고 한다. 大原 望(2014)에 따르면 笹原宏之 교수와 저서 『国字と位相』(일본 國語學 163所収)에서, 에도 시대 후기에 네덜란드의 학자 宇田川玄眞(1769~1834)이 번역을 하면서 만든 글자라고 한다.⁵⁶⁾ 菅原義三(1990: 92)에 따르면 腺은 肉과 線의 생획자 泉이 합자된 것이라 하였다. 笹原宏之(2017: 125)에 따르면 ⑮-나의 腺는 ‘췌장’을 뜻하는데 일본 국자 腺 역시 宇田川玄眞(1769-1834)이 번역을 하면서 만든 글자라고 한다.

⑭에 제시한 ‘峠, 畑, 働, 桎, 鱈, 呖, 粉, 込, 鰯’ 등의 일본 국자는 1945년 해방 이후로 우리의 문자 생활에서 차츰 자취를 감추었으나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는 ⑮의 ‘腺, 腺’ 등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문자 생활에 남아 사용되고 있다. 腺이 포함된 전문 용어 ‘扁桃腺, 淋巴腺, 分泌腺, 腺病’ 등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으며, 腺이 포함된 전문용어 腺臟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다.

4. 일본 자료에 남겨진 된 한국 고유한자의 흔적

(1) 논의의 출발점

이 절에서는 일본 자료에 남겨진 한국 고유한자 ‘性, 閫, 漑’ 등의 흔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性의 경우 寬元 3년(1245)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⁵⁷⁾ 『寬元本字鏡集』과 『応永本字鏡集』 등에 동일한 자형이 실려 있으며, 閫의 경우에는 鎌倉 시대 초기에 성립한⁵⁸⁾ 『世尊寺本字鏡』에 동일한 자형이 실려 있고, 漑의 경우에는 1653년에 간행된 『法華三大部難字記』 동일한 자형이 실려 있다. 이들 사서와 주석서에는 해당 글자에 대응하는 일본어 어휘가 편가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본어 어휘의 의미를 고려하면 한국 고유한자 ‘閫, 性, 漑’ 등의 조자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주목된다.

이 글의 앞에서 ‘掠, 獫, [金瓮]’ 등의 한국 고유한자와 한국에서 사용된 이체자 鑑가 일본에 유입되었음을 말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일본의 고사서와 주석서에 실린 해당 한자들은 한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閫, 性, 漑’ 등에 대해서 大原 望(2014)은 논의했다. 그러나 일본 국자를 총체적으로 다룬 菅原義三(1990), 笹原宏之(2017) 등은 ‘閫, 性, 漑’ 등을 일본 국자로 다루지 않고 있는 것도 ‘閫, 性, 漑’ 등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한국 고유한자 ‘閫, 性, 漑’ 등의 조자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2) 閫

일본의 古辭書에 실린 閫⁵⁹⁾에 대해 大原 望(2014)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56) 大原 望(2014), “腺, [読み] セン [解説] 笹原宏之著 『国字と位相』(國語學163所収)に「江戸時代後期に蘭医の宇田川玄眞(1769~1834年)が訳に用いた造字”

57) 오미영, 『일본의 고사전에 대하여』, 2008, 51~52쪽, “7卷本(寬元本)과 20卷本이 있다. 菅元爲長(1158~1246)이 편찬하였고 성립은 寬元 3년(1245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58) 오미영, 2008, 51쪽, “『字鏡』은 일반적으로 『世尊寺本字鏡』이라 일컬어지는 東洋文庫 소장 零本 2帖을 가리킨다. 鎌倉時代 초기에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⑬ 閫 国字이다. [음, 훈] みやこ(도회지) [解説] 『世尊寺本字鏡』・『天文本字鏡鈔』에 「ミヤコ」라고 함. (중국) 廣東語의 地域文字로 女陰의 뜻으로 사용되고⁶⁰⁾ 〈大原 望(2014)〉

⑬에서 ‘閫 参照’란 설명을 고려하면 ⑬의 표제자로 제시한 자형과 閫은 이체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국자를 총체적으로 다룬 ‘菅原義三(1990), 笹原宏之(2017)’ 등에서 閫에 대해 다루지 않았고, 또 築島 裕編(2007: 452-453)에서는 일본어 ミヤ코에 대응하는 한자나 한자어로 ‘京(ミヤコ), 京城(ミヤコ), 京師(ミヤコ), 京都(ミヤコ), 城(ミヤコ), 皇居(ミヤコ)’ 등만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⑬의 閫은 한국 고유한자 閫의 흔적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의 광둥어에서 閫이 女陰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광둥어에서 사용하는 閫과 한국 고유한자 閫은 그 조자법이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上代語辭典編纂委員會(1992)에 따르면 일본어 ミヤ코는 ‘미야(宮)’와 ‘코(土地)’가 복합된 것⁶¹⁾이라고 한다. 한편 日本大辭典刊行會(소화 56년)에 따르면 일본어 ミヤ코는 ‘황궁이 있는 곳,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곳, 변화한 곳’ 등의 의미⁶²⁾를 가진다고 한다. ‘황궁이 있는 곳’의 의미에서 ‘변화한 곳’의 의미가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 파생 관계는 한어 都에서도 발견된다. 한어 都는 황제가 있는 國都의 의미뿐만 아니라 ‘도회지’의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다.⁶³⁾

일본의 고사서에 실린 閫와 일본어 ミヤ코가 가진 의미 간의 관계에 대해 필자는 그 가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일본의 古辭書에 실린 閫의 의미 ミヤ코를 활용하여 한국 고유한자 閫의 의미를 추가하거나 그 조자 방식을 논의하기로 한다.

한국 고유한자 閫은 균어 향가인 『청전법륜가』에서 ‘知良閫尸也’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되었을 뿐 이후의 자료에서는 항상 閫失로 사용되어 왔다. 閫과 閫失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왔다.

- ⑭ 가. 閫 잃을 서 國字. 음은 서. 뜻은 잃다. 〈한국한자어사전〉
 나. 閫失(서실) 잃어 버림. 〈한국한자어사전〉
 다. 서실(閫失) 「명사」 물건을 호지부지 잃어버림 〈표준국어대사전〉
 라. 일이 많아 바빠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閫失이라 한다.⁶⁴⁾ 〈晝永編 下〉

⑭-나에서 閫失의 의미를 ‘잃어 버림’으로 설명한 것은 閫의 의미를 빼놓고 설명한 것이다. ⑭-다에서는 閫의 의미를 ‘호지부지’로 설명하였고 ⑭-라에서는 閫의 의미를 ‘일이 많아 바빠서’로 설명하였다. 閫이 일본

59) 편의상 閫으로 제시한 것이다. 西의 자형은 𠂔에서 ‘人’을 제외한 나머지 자형이다.

60) 大原 望, 2014, “閫 国字 [読み] みやこ [解説] 『世尊寺本字鏡』・『天文本字鏡鈔』に「ミヤコ」とある。廣東語の地域文字として女陰の意で用いられるが…(하략)…”

61) 上代語辭典編纂委員會, 1992, 716, “ミヤコ[都 京 皇都](名)皇居のある土地。皇居の町。宮と、場所を意味するコの複合か。”

62) 日本大辭典刊行會, 소화 56년, 1376~1377, “みやこ[都 京] みやは宮こは場所「1」皇居のある土地。…(중략)…「2」政治經濟文化などの中心として多くの人口を有する繁華な都會。…(후략)…”

63) 『漢語大詞典』, 都, “1. 古稱建有宗廟的城邑., 2. 國都, 京都, 3. 建都., 4. 大城市; 著名城市.”

64) 『晝永編』 下, “倅僇失物稱閫[音서]失”

어로는 도회지의 뜻인 ミヤコ이고, 閭이 門과 西의 의미가 모여져 구성된 것이라는 가정을 해서 보면, ⑮-다 보다는 ⑮-라의 의미가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閭이 門과 西(서울)로 구성된 회의자로 파악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서울의 문’은 사람이 많아 복잡하기 때문이다. ‘수도’를 의미하는 ‘서울’이 ‘복잡하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 가서 김 서방 찾기’란 속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문제는 閭의 구성소인 西가 ‘서울’의 의미임을 말하는 것이다. 西가 ‘서울’의 의미임은 다음 자료를 통하여 이기문(2008: 147-148)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 ⑮ 가. 국호는 徐羅伐이다. 또 徐伐이다(지금 세상에서 京字의 訓을 徐伐이라 말하는 것도 이 까닭이다.) 또 斯羅이다.⁶⁵⁾ 〈三國遺事 新羅始祖 赫居世王〉
나. 京을 西那라 한다.⁶⁶⁾ 〈耽羅志 風俗 俚語難澁〉

이기문(2008: 147-148)은 ⑮-가 徐伐의 徐와 ⑮-나 西那의 西를 동일한 어휘로 파악하고 徐와 西는 ‘시라/시로(斯羅, 斯盧, 尸羅 등)’에서 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기문(2008: 147-148)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표기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⑯ 가. 居瑟耶或作居西干 〈三國遺事 新羅始祖 赫居世王〉
나. 寓止嘉瑟岬或作加西, 又嘉栖 皆方言也 〈三國遺事 圓光西學〉
다. 今雲門寺東九千步許, 有加西峴, 或云嘉瑟峴 〈三國遺事 圓光西學〉
라 溟州 本高句麗河西良(一作何瑟羅) 〈三國史記 卷35〉
마. 何瑟羅州(一云河西良 一云河西) 〈三國史記 卷37〉

⑯-가, ⑯-나, ⑯-다 등은 모두 西가 瑟에 대응되는 예이고, ⑯-라는 西良가 瑟羅에 대응되는 예이며 ⑯-마는 西良가 西에 대응되는 예이다. ⑯-마의 西良가 西의 대응을 통해서 ⑮의 徐와 西가 ‘시라/시로(斯羅, 斯盧, 尸羅 등)’에서 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서’를 표기한 ⑮의 徐와 西의 상대형인 ‘斯羅, 斯盧, 尸羅’ 등의 본래 의미는 또 다른 논증이 필요한 것이지만 한국 고유한자 閭의 구성소인 西가 ‘서울’의 의미일 가능성은 찾은 셈이다.

(3) 柵

일본의 고사서에 실린 柵⁶⁷⁾에 대해 大原 望(2014)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⑯ 가. 柵 国字이다. [읽기] いのる(빌다) めるで(붙나무) めるでのき(붙나무) [解説] 『天文本字鏡』

65) 『三國遺事』, 新羅始祖, 赫居世王, “國號徐羅伐 又徐伐(今俗訓京字云徐伐 以此故也) 或云斯羅”

66) 『耽羅志』, 風俗, 俚語難澁, “以京爲西那”

67) 편의상 閭으로 제시한 것이다. 西의 자형은 𠂔에서 ‘人’을 제외한 나머지 자형이다.

鈔・『永正本字鏡鈔』・『龍谷大学本字鏡集』・『寛元本字鏡集』・『応永本字鏡集』・『白河本字鏡集』・『音訓篇立』에 「イノル」, 『篇目次第』에 「イノル无」, 『運歩色葉集』 등에 「ヌルデ」, 『弘治二年本節用集』에 「ヌルテノキ」, 『永祿二年本節用集』에 「ヌルテ」라고 함. 「白膠木(ヌルデ)」은 ウルシ科의 落葉小高木이다. 「才生」 参照⁶⁸⁾ 〈大原 望 2014〉

나. [才生] 国字이다. [읽기] いのる(빌다) [解説] 『観智院本類聚名義抄』・『天文本字鏡鈔』・『龍谷大学本字鏡集』・『寛元本字鏡集』・『白河本字鏡集』・『音訓篇立』에 「イノル」라고 함. 国字「性」의 異体字이다. 国字라고 생각된다. 『白河本字鏡集』은 「手部」에 있다. 「性」처럼도 보이는 자형으로 있다. 「性」 参照⁶⁹⁾ 〈大原 望 2014〉

㉑-가에서 性의 의미를 ‘いのる(빌다), ぬるで(붉나무)’ 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 ㉑-나에서는 [才生]의 의미를 ‘いのる(빌다)’로 설명하고 있다. ㉑-나에서 말한 것처럼 [才生]은 性의 이체자이다.

菅原為長에 의하여 寛元 3년(1245)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字鏡集』에 性이 ㉑-가처럼 ‘いのる(빌다)’의 의미로 실려 있는 것이 주목된다. 한국 고유한자 性에도 일본 국자 性의 의미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鮎貝房之進(1931, 95-103)은 한국 고유한자 性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해를 위하여 관련 용례도 함께 제시한다.

㉒ 가. 木標 : (원)표(대)덕은 법력으로 정사에 베풀어 그 때문에 乾元 2년(759) 특별히 명령하여 長生標柱를 세우게 하여 지금까지 남아 있다.⁷⁰⁾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884)〉

나. 境界標 : 通度寺孫仍川國長生一坐段 〈通度寺國長生石標(1085)〉

다. 里程標 : 하루는 斯文 尹淡叟와 金海에서 밀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이야기하다가 長性을 보면 반드시 하인으로 하여금 里數의 遠近을 자세히 보게 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달려도 오히려 더디감을 의심하더니⁷¹⁾ 〈慵齋叢話 卷5〉

㉒ 가. 簡子/座右銘 : 진표가 이에 가르침을 전하여 灌頂을 하고, 드디어 가사와 바리, 供養次第祕法한 권, 日察善惡業報經 두 권과 189개 性을 주었다. 또 미륵의 眞性 9자와 8자를 주고⁷²⁾

68) 大原 望, 2014, 性, “国字か[読み] いのる ぬるで ぬるでのき [解説] 『天文本字鏡鈔』・『永正本字鏡鈔』・『龍谷大学本字鏡集』・『寛元本字鏡集』・『応永本字鏡集』・『白河本字鏡集』・『音訓篇立』に「イノル」、『篇目次第』に「イノル 无」、『運歩色葉集』などに「ヌルデ」、『弘治二年本節用集』に「ヌルテノキ」、『永祿二年本節用集』に「ヌルテ」とある。「白膠木(ヌルデ)」は、ウルシ科の落葉小高木。「才生」 参照

69) 大原 望, 2014, [才生], “国字 [読み] いのる [解説] 『観智院本類聚名義抄』・『天文本字鏡鈔』・『龍谷大学本字鏡集』・『寛元本字鏡集』・『白河本字鏡集』・『音訓篇立』に「イノル」とある。国字「性」の異体字か。国字と考えられる。『白河本字鏡集』は、「手部」にあるが、「性」のようにも見える字形である。「性」 参照。”

70)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884)」, “表徳以法力施于有政 是以 建元二年 特教植長生標柱 至今存焉”

71) 『慵齋叢話』, 卷5, “一日與斯文尹淡叟。自金海還密陽。並轡而話。見長性則必令卒往審里數之遠近。策鞭馳驅。猶恐不速也。忽見平郊縹緲。間有樓閣隱映之形。問諸卒曰此何處。卒云嶺南樓也。”

72) 『三國遺事』, 卷四, 義解第五, 關東楓岳鉢淵藏石記. “師乃傳教灌頂, 遂與袈裟及鉢・供養次第祕法一卷・日察善惡業報經二卷・一百八十九性. 復與彌勒真性九者八者”

〈三國遺事 卷四 義解第五 關東楓岳鉢淵戴石記(1199)〉 / 辛禍初, 擢拜大司憲, 封晉山君, 書“知非誤斷, 皇天降罰”八字於柱, 〈高麗史 卷112 列傳 卷第25 諸臣 河允源(1322~1376)〉

나. 及籤: 저비/씨 .四書中抽柱一書, 三經中自願一書, 背誦. 〈大典會通 禮典 諸科 別試文科初試會講〉

다. 試驗等級: 柱 사슬 不見字書蓋俗文 〈재물보〉

손진태(1948: 249)는 ②류의 경우에는 신라 및 고려 시대에는 長生이라 했으나 조선 초기에 들어서서 생을 柱으로 대체하여 長柱이라 했고, ③류는 고려 중엽부터 ‘簡子, 木札’ 등의 의미인 柱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근거 위에서 ②와 ③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鮎貝房之進(1931, 95-103)은 ②와 ③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였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東國土俗字辨證說」에서도 ②와 ③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東國土俗字인 柱의 의미를 ‘강의할 경서를 선택하거나 고을의 회계를 부분적으로 조사할 때 사용하는 대나무 쪽’과 ‘마을의 이정표로 사용되는 나무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다.⁷³⁾

③류의 柱이 가지는 의미를 鮎貝房之進(1931, 95-103)은 ‘簡子/座右銘 及籤(저비/씨) 試驗等級(柱/사슬)’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의미는 ‘글자를 기록한 나무나 대나무 조각’을 뜻하는 簡子が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해석된 것으로 생각된다.

④ 가. 병조에서 武經習讀官을 取才할 때에 武經七書를 각기 柱에 써서 한 통 속에다 넣고 取才할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속에 든) 抽一柱하여(제비를 뽑게 하여), 병조와 무학 제조가 합동으로 考講하고, 능통한 자는 올려서 천거하게 하소서⁷⁴⁾ 〈世宗實錄 1424년(세종 6) 3월 12일

나. 만일 강경한 후 柱을 낼 때에 이르러서는 조통·약통·통(通)·대통을 講柱의 수효가 많은 것에 따르고, 만일 柱의 수효가 서로 같으면 下柱에 따라 施行하게 하소서.⁷⁵⁾ 〈세종실록 1444년(세종 26) 2월 9일〉

다. 石室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山陵의 期日이 가까웠는데 故事를 따르는 자는 석실을 만들자고 하고, 家禮에 의거하는 자는 灰隔을 쓰자고 하여, 兩說이 정해지지 않았다. 임금이世子 李禕를 명하여 종묘에 나아가 探柱하여(柱을 쳐서) 石室으로 정하였다.⁷⁶⁾ 〈태종실록 1408년(태종 8) 7월 26일〉

④-가의 抽一柱에 등장한 柱은 문맥에 의해 ‘제비’의 뜻을 가지게 된 것이다. 抽는 ‘빼다, 뽑다’의 의미⁷⁷⁾

73)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辨證說, “柱. 【音生. 謬音承. 講書抽籤曰抽柱 外邑反庫抽籤會計 亦稱抽柱. 繕工監有柱竹進上 里塚木人曰長柱 謬呼長丞】”

74) 『世宗實錄』, 1424년(세종 6) 3월 12일, “兵曹啓 武經習讀官取才 請將武經七書各書于柱 合置一筒 令取才者自抽一柱 曹與武學提調一同考講 能通者上薦.”

75) 『世宗實錄』, 1444년(세종 26) 2월 9일, “至如講經後出柱時, 粗·略·通·大通講柱之數 從多 若柱數相等 則從下柱施行”

76) 『太宗實錄』, 1408년(태종 8) 7월 26일, “命造石室 山陵期近 遵故事者 欲作石室 據家禮者 欲用灰隔 兩說未定 上命世子禕詣宗廟探柱 定爲石室”

이므로 杻이 ‘제비를 뽑는 행위’에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㉔-나의 下杻에 등장한 杻는 문맥에 의해 ‘시험 등급’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㉔-나의 杻에는 ‘粗, 略, 通, 大通’ 등의 등급 표시가 적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杻이 ‘시험등급’의 의미를 뜻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㉔-나의 探杻에 등장한 杻는 문맥에 의해 ‘점 치다’의 파생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글자를 기록한 나무나 대나무 조각’을 뜻하는 簡子를 던져서 점을 치는 행위는 『三國遺事』心地繼祖 조의 ‘높이 올라가 간자를 던져서 점을 쳐보다⁷⁸⁾’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杻의 또 다른 문맥적 의미가 발견된다.

㉕ 가. 이에 지장·미륵보살이 [율사] 앞에 나타나고, 미륵보살이 진표의 정수리를 쓰다듬으면서 말 하였다. “잘하는도다. 대장부여. 이와 같이 계를 구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고 참회를 간절히 구하는도다.” 지장이 戒本을 주고 미륵은 다시 2개의 杻를 주었는데 하나는 9자(者)라고 쓰여 있었고 하나는 8자라고 쓰여 있었다.⁷⁹⁾ 〈三國遺事 關東楓岳鉢淵藏石記〉

나. 또 처음처럼 근면과 용기를 냈더니 과연 점찰경 두 권과(이 경은 진나라 수나라 사이에 외국 의 번역이요 여기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미륵 보살이 이 경을 준 것이다.) 證果 簡子 189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그 중에 8자는 새로 얻은 오묘한 계율을 말한 것이요, 9자는 더 얻은 자세한 계율인데”⁸⁰⁾ 〈三國遺事 眞表傳簡〉

㉕-가에서 杻으로 표현된 것이 ㉕-나에서는 證果簡子로 표현되어 있다. 耘虛 龍下の 『불교사전』에 따르면 證果란 ‘修行한 결과로 얻는 과보’를 뜻한다. 따라서 ㉕-가의 杻는 문맥적 의미로 ‘간절히 구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㉕-가의 문맥에서 한국 고유한자 杻이 ‘간절히 구하다’의 문맥 의미를 가지듯이 ㉕-나의 문맥에서 한어 簡子 역시 ‘간절히 구하다’의 문맥 의미를 가지는 점이 주목된다. ‘글자를 기록한 나무나 대나무 조각’이라는 의미에서는 한국 고유한자 杻의 造字法을 설명할 수 없으나 ‘간절히 구하다’의 의미에서는 한국 고유한자 杻의 造字法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의 「東國土俗字辨證說」에는 杻의音を 生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자료는 한국고유한자 杻이 우리말 ‘쇠’ 정도를 표기했을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㉕ 가. 杻川 본부 남쪽 50리에 있으며, 지금은 金伊江津이라고 하니, 바로 長溪川의 하류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定平都護府 山川〉

나. 杻伊坊 〈輿地圖書서 平壤府 坊里〉, 杻伊坊 〈戶口總數 平壤府 禮安部〉

77) 『光州千字文』, 32b, “拙 𣎵일 𣎵”

78) 『三國遺事』, 心地繼祖, “憑高擲簡以卜之”

79) 『三國遺事』, 關東楓岳鉢淵藏石記, “於是, 地藏慈氏摩師頂曰 善哉大丈夫 求如是戒 不惜身命 懇求懺悔 地藏授與戒本 慈氏復與二杻 一題曰九者 一題八者”

80) 『三國遺事』, 「眞表傳簡」, “又勲勇如初 果感彌力現授 占察經 兩卷(此經乃(陳)·(隋)間外國所譯 非今始出也 慈氏以經授之耳)並證果簡子一百八十九介 謂曰: 於中第八簡子 喻新得妙戒 第九簡子 喻增得具戒”

다. 스로 쇠는 풍덕군 사람이라 / 私奴金伊豊徳郡人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忠臣圖1: 80b〉

㉔-가의 性川과 金伊江津의 대응은 性과 金伊의 이표기 관계를 알려 주고 있다. 한편 ㉔-나의 性伊에 나타난 伊는 性과 金伊가 이표기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性伊의 伊는 말음첨기자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㉔-다는 ‘쇠’와 金伊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㉔가에서 ㉔-다까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한국 고유한자 性은 우리말 ‘쇠’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말 ‘쇠’ 정도를 표기한 한국 고유한자 性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性이 표기한 ‘쇠’는 현대 국어의 ‘쇠다’와 연관시킬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쇠다’의 의미가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하여 지내다’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하여 지내다’의 의미는 ‘수행’의 의미와 부합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고유한자 性의 조자법은 ‘쇠다’를 훈차 표기한 生에 木 符를 첨가한 형성자로 파악된다. 長生이 長性으로 교체되었다는 관점에서 한국 고유한자 性이 長生의 生에 기원을 두고 木 符를 첨가하여 조자된 형성자로 파악한 鮎貝房之進(1931: 100)의 주장은 성립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고사서에 실린 性의 훈이 ‘いのる(빌다)’임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日本大辭典刊行會(소화 56년)에 따르면 일본어 ‘いのる(빌다)’는 ‘い(神聖, 齋)+のる(宣)’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신께 기원하다⁸¹⁾’의 의미라고 한다. 일본어 いのる의 의미는 앞의 ㉔에서 진표 율사가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에게 ‘참회를 간절히 구하다’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瀟

大原 望(2014)은 『法華三大部難字記』에서 瀟의 훈이 おさむ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하였다.

㉔ 瀟 [읽기] おさむ [解説] 『法華三大部難字記』에 ヲサム라고 함⁸²⁾ 〈大原 望 2014〉

ヲサムの 히라가나 형은 をさむ인데 ㉔에서는 おさむ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をさむ를 おさむ로도 표기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をさむ와 이것의 가능형 동사인 おさめる는 ‘사물이 안정된 상태가 되다’의 뜻과 ‘세금을 받다’의 뜻이 있는데, 『삼국유사』 향가인 『遇賊歌』에 나오는 瀟도 ‘사물이 안정된 상태가 되다’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㉔의 자료는 한국 고유한자 瀟의 의미 파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어 おさめる에 대해 日本大辭典刊行會(소화 56년)에서는 그 의미를 다음과 풀이하고 있다.

㉔ 가. おさむ/をさむ[治] → おさめる

81) 『日本國語大辭典(縮刷版)』, “いのる【祈る／禱る】[他動ラ五(四)](いは神聖, 齋の意, のるは宣るの意) (1) 神仏に請い願う。…(후략)…”

82) 大原 望, op cit., 2014, “瀟 [読み] おさむ [解説] 『法華三大部難字記』に「ヲサム」とある”

나. おさめる/をさめる[治, 修, 納, 收] [1] (治 修) 사물이 안정된 상태가 되다. …(중략)…① 주권자로서 나라의 정치를 맡다. 統治하다…(중략)…書記 - 孝徳大化二年三月(北野本訓) 萬民을 통치하는 일은 (중략) ④ (병기, 굶주림 등을) 고치다. 治療하다…(중략)…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平安初期占點 - 九 能く衆の病と四大の増損とを療(をさむ)たまふと雖も…(중략)…[2](納, 收) 물건을 과부족 없이 안에 잘 넣다…(하략)…⁸³⁾ 〈日本國語大辭典(縮刷版)〉

㉘-가의 설명은 일본어에서 おさむ와 おさめる의 의미가 유사함을 말하는 것이고, ㉘-나의 설명은 일본어 おさめる의 의미가 ‘統治하다, 治療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 관련 자료의 예시는 일본어 おさむ가 고대 용법으로 ‘統治하다, 治療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法華三大部難字記』에 실린 潛의 조자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潛의 조자법을 알려 줄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法華三大部難字記』에 실린 글자들의 출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潛의 조자법을 알려 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⁸⁴⁾ 다만 한어에서 潛이 단독으로 ‘改善’의 뜻을 가지기⁸⁵⁾도 하므로 『法華三大部難字記』에 실린 潛의 기원이 潛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潛이 潛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은 한국의 자료에서 찾아진다. 균여 향가에서는 ‘善陵等沙(隨意功德歌), 一切善陵(普皆廻向歌), 向乎仁所留 善陵道也(總結無盡歌)’ 등과 같이 善陵으로 나타나 『삼국유사』 향가인 「遇賊歌」에서는 ‘善陵隱安支尙宅都乎隱以多와 같이 善陵으로 나타나서 潛이 潛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일본어 おさむ가 ‘統治하다, 治療하다’의 의미를 가졌는데 이에 해당되는 한국어로 후기 중세국어와 ‘다솔다’와 이에서 파생된 ‘다스리다’가 있다. ‘다솔다’와 ‘다스리다’는 ‘統治하다, 治療하다’ 등의 의미⁸⁶⁾를 가지고 있고 善陵과 潛陵에서 陵을 ‘다솔’의 ‘ㄹ’을 말음침기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善陵과 潛陵을 ‘다솔’로 판독하는 것은 단지 가능성의 제시에 불과하다. 善陵과 潛陵을 ‘다솔’로 판독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治陵’ 정도의 차자 표기 자료가 발견되어야 한다.⁸⁷⁾

83) 『日本國語大辭典(縮刷版)』, “おさめる/をさめる[治, 修, 納, 收] [1] (治 修) ものごとを安定した状態にする…(중략)…① 主權者として國の政治をとる。統治する…(중략)…書記 - 孝徳大化二年三月(北野本訓) 萬の民を宰(オサムル)ことは…(중략)…④ (病氣 飢えなどを)なす。治療する…(중략)…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平安初期占點 - 九 能く衆の病と四大の増損とを療(をさむ)たまふと雖も…(중략)…[2](納, 收) 物をきちんと中にしまい入れる…(하략)…”

84) 川瀬一馬(1955: 568)에 따르면, 일본의 고사서 『法華三大部難字記』는 중국의 智顗(538-597)가 강설한 『法華玄義』, 『法華文句』, 『摩訶止觀』 등에 대한 音義라고 한다. 또 川瀬一馬(1955: 568)에 따르면 『法華三大部難字記』 承應 癸巳年 刊本이 전하고 있다. 그런데 瀬一馬(1955: 568)는 『摩訶止觀難字音義』 권3 말미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題書에 근거하여 『法華三大部難字記』가 應永 十四年(1408년) 무렵에는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法華三大部難字記』에 수록된 글자로 不可思議한 글자와 日本 國字가 일부 실려 있음이 笹原宏之(2012)에 의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笹原宏之(2012)의 논의에 따르면 『法華三大部難字記』에는 『法華玄義』, 『法華文句』, 『摩訶止觀』 등에 수록된 글자나 이들과 관련된 주석서에서 비롯된 글자뿐만 아니라 다른 출처의 자료에서 비롯된 글자도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85) 『漢語大詞典』, 善 “7. 使之善; 改善. <禮記·樂記>: “樂也者, 聖人之所樂也, 而可以善民心.” 參見“善俗”

86) 후기 중세국어에서 ‘다솔다’와 ‘다스리다’는 흔히 ‘통치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月印釋譜』 17:19a의 ‘聖賢스 그쳐 다스리시 는 藥을 求히며/求聖賢醫治之藥의 경우에는 ‘다스리다’가 ‘치료하다’의 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87) 이에 대한 의견은 서울대학교 황선엽 교수가 제안해 준 것이다.

Ⅲ. 결 언

이 글은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의 고유성 판단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면서 일본에 유입된 한국 고유한자를 발굴하였으며, 한국 고유한자 閫와 性의 조자법의 단서를 찾았으며 한국 고유한자 瀡의 의미가 ‘치유하다’의 의미일 가능성을 열어 놓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로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판단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착오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고유성 판단 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사례로 일본의 경우에는 한자 症과 喰을, 한국의 경우에는 한자 脇과 脇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同形異義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도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고유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설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垚, 倂, 鑛, 魴, 鱻’ 등은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에 모두 존재하지만 조자법의 차이에 말미암아 그 의미가 다른 것임을 이 글에서 언급하였다. 일본 국자의 경우에는 ‘垚(ぬた, 沼田) 倂(はたらく, 생각해서 일하다) 鑛(みずかね, 水銀), 魴((ど)じょう, 미꾸라지), 鱻(はも, 갯장어)’ 등의 의미를 가지나 한국 고유한자의 경우에는 ‘垚(티), 倂(다짐), 鑛(복자), 魴(가물치), 鱻(삼치)’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鰯의 경우에는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가 분명치 않아 후일의 연구로 미루었으며, 일본 국자 楡와 한국 고유한자 楡는 그 의미가 유사할 가능성을 제안했으나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아 후일의 연구로 미루었다.

세 번째로 한국 고유한자와 일본 국자 간의 수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도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고유성 판단 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대의 시기에는 한국 고유한자 ‘棕(창고), 獾(담비), [金瓮(금속제 장군), 鑑(자물쇠)] 등이 일본으로 유입되어 사용되었으며, 19세기 말 20세기 무렵부터는 일본의 국자인 ‘峠(とうげ, 고개), 畑(はたけ, 밭), 働(はたらく, 일하다), 梶(まさめ, 나무의 꺾은 결), 鱈(たら, 大口魚), 吠(かます, 가마니), 糲(もみ, 벼), 込(こめる, 속에 담다), 鰯(いわし, 정어리, 멸치), 腺(분비샘), 驛(驛장)’ 등이 한국으로 유입되어 사용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네 번째로 일본 자료에 남겨진 한국 고유한자의 흔적을 찾아 한국 고유한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도 일본 국자와 한국 고유한자의 고유성 판단 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 고유한자 ‘閫, 性, 瀡’ 등과 자형이 동일한 글자의 흔이 일본 자료에 남아 있는 것을 한국 고유한자 유입의 흔적으로 추정하여 한국 고유한자 ‘閫, 性’ 등의 조자법을 이해하였고, 한국 고유한자 瀡의 의미를 추정하였다. 閫의 경우 일본어 흔이 ‘ミヤコ(도회지)’인 것에 착안하여 閫이 門(문)과 西(서울)로 구성된 회의자로 파악하였으며 그 의미가 ‘복잡하다’임을 확인하였다. 性의 경우 일본어 흔이 ‘いのる(신께 빌다)’인 것에 착안하고, 지명 性川の 이표기로 金江江津이 존재한 것을 근거로 性에서 생이 ‘근신하며 지내다’의 의미인 ‘쇠’의 훈차 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훈차 표기 ‘生/쇠’에 木 符를 첨가한 형성자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瀡의 경우 瀡에 기원한 形聲字일 가능성과 그 의미는 ‘치료하다’일 가능성을 제안했다.

〈參考文獻〉

1. 자료

- 『康熙字典』(<http://tool.httpcn.com/KangXi>)
- 『高麗史』(아세아문화사, 1972)
- 『고문서집성 19- 하회 풍산유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校訂)大明律直解』(朝鮮總督府中樞院調査課 編, 1936)
- 『光州千字文』(東洋學叢書 第三輯, 197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영인본)
- 『大典通編』(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3-9)
- 『同文類解』(홍문각, 1995)
- 「寶林寺普照禪師聖塔碑(884)」(盧明鎬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 2000, 서울대학교출판부.)
- 『三國史記』(대제각, 1987)
- 『三國遺事』(대제각, 1987)
- 『惺所覆韻稿』(한국고전번역원정보시스템, <http://db.itkc.or.kr>)
- 『續日本紀』(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新增東國輿地勝覽』(진국지리지, 아세아문화사, 1983)
- 『輿地圖書』(국사편찬위원회, 1979)
- 『五洲衍文長箋散稿』(한국고전번역원정보시스템,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龍龕手鑑』(대만 교육부 이체자사전, <http://dict.variants.moe.edu.tw>)
- 『吏文輯覽』(국립중앙도서관 古3116-1)
- 『倭語類解』(대제각, 1985)
- 『慵齋叢話』(한국고전번역원정보시스템,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月印釋譜 合本 21-23』(弘文閣, 1984)
- 『儒胥必知』(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31-7-2-8)
- 『六典條例(규장각 소장 자료, 가람古340.091-Y95-v.6)
- 『字典釋要』(池錫永, 1909)
- 『朝鮮輿賦』(국립중앙도서관, 古古5-79-다1)
-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晝永編』(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古3638-27-1-2)
- 『中華字解 上 下』(中國友誼出版公司, 2000)
- 『天治本新撰字鏡』(日本 京都大學校)
-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
- 『韓國漢字語辭典』(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2)

『訓蒙字會』(東洋學叢書 第一輯, 197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耽羅志』(국립중앙도서관, 古2749-1)

2. 논저

菅原義三, 『國字の字典』, 東京堂出版, 1990.

권인한, 「한국 고유한자의 생성과 전파」, 『한국 고유한자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9회 사전학 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8.

金種權 역주, 『雅言覺非』, 一志社, 1976(2001).

金斗河, 『벽수와 장승: 法首와 長牲의 資料와 解説』, 集文堂, 1990.

남풍현, 「한국의 고유한자」, 『韓國語와 漢字·漢文의 만남』, 도서출판 월인, 2014(1989).

남풍현, 「密陽小台里 五層石塔 造成緣由記의 판독과 해독」,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2014.

檀國大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9~2008.

大原 望, 『和製漢字の辞典2014』, <http://ksbookshelf.com/nozomu-oohara/WaseikanjiJiten/>, 2014.

稻葉岩吉, 「百濟の椋及び椋部」, 『釋椋』, 大阪屋號書店, 1936.

上代語辭典編纂委員會, 『時代別 國語大辭典 上代編』, 三省堂, 1992.

笹原宏之, 『国字の位相と展開』, 三省堂, 2007.

笹原宏之, 「漢字の現在 第218回 お化けの字? エイ・フン」, https://dictionary.sanseido-publ.co.jp/column/kanji_genzai218, 2012.

笹原宏之, 『ビジュアル国字字典』, 株式會社世界文化社, 2017.

손진태, 「蘇塗考」,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朝鮮 及 中國의 民俗 研究 論集』, 乙酉文化社, 1948ㄱ.

손진태, 「長牲考」,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朝鮮 及 中國의 民俗 研究 論集』, 乙酉文化社, 1948ㄴ.

손진태, 「牲考」,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朝鮮 及 中國의 民俗 研究 論集』, 乙酉文化社, 1948ㄷ.

新潮社, 『新潮日本語漢字辞典』, 株式会社新潮社, 2007.

오미영, 「일본의 고사전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11, 한국사전학회, 2008.

운허 용하,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1961(1994).

윤선태, 「雁鴨池 出土 門號木簡과 新羅 東宮의 警備」, 『韓國古代史研究』 44, 한국고대사학회, 2006.

이건식, 「한국 고유한자의 발달-지명의 후부 요소 표기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22, 구결학회, 2009ㄱ.

이건식, 「朝鮮 前期 文獻 資料에 나타난 魚類名 表記에 대한 研究」, 『국어학』, 55, 국어학회, 2009ㄴ.

이건식, 「한국 고유한자 자형 구성 방법 연구 二題-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形聲으로 만들어진 한국 고유한자의 몇 가지 사례」, 『東洋學』 52,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이건식, 「한국 고유한자 구성요소 ㄴ의 의미와 특수성 형성 배경」, 『한민족문화연구』 42, 한민족문화학회, 2013.

이건식, 「통합 漢韓大辭典의 國字 처리에 대하여」, 『東洋學』 5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 이기문, 「신라의 어원」, 『새국어생활』 18권 2호, 국립국어원, 2008.
- 이성규(역), 『広辞苑 日韓辞典』, 도서출판 어문학사, 2012.
- 日本大辭典刊行會(소화 56년), 『日本國語大辭典(縮刷版)』, 小學館.
- 日本大辭典刊行委員會(소화 59년), 『日本國語大辭典(縮刷版)』, 小學館.
- 鮎貝房之進, 『俗字攷』, 雜攷, 東京: 圖書刊行會, 1931.
- 中國友誼出版公司, 『中華字海』, 北京, 2000.
- 川瀨一馬, 『古辭書の研究』, 東京: 講談社, 1955.
- 築島 裕編, 『訓點語彙集成 第 7卷』, 汲古書院, 2007.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1993.
- 横山七郎, 「和製漢字新考」, 『帯広畜産大学学術研究報告』 第II部 3(1), 1965.

* 이 논문은 2019년 2월 22일에 투고되어,
 2019년 3월 2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4월 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4월 11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The Necessity of Setting the Standards for Judging the Inherence of Japanese Nation Characters and Korean Native Chinese Characters

Lee, Keonsik*

This paper discovered the Korean native Chinese characters which were flowed in Japanese, discussing the necessity of setting up the standards for judging the inherence of Japanese nation characters (日本 國字) and Korean native Chinese characters (韓國 固有漢字) from the four aspects.

It is said in this paper that there were mistaken in judging the Japanese nation characters and Korean native Chinese characters since, in respects of judging them, the standards for judging the inherence were obscure. For example, the case of Japanese, there was a mistake in view of considering Chinese jeung (症) and sik (喰) as Japanese nation characters and Chinese jong (鯨) and geo (鰐) as Korean native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Japanese homographic nation characters and Korean native Chinese characters, it was mention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word formation applied in both nations. Furthermore, 'dae (岱), go (徂), seon (鐸), jeong (鯨), ma (鱸)' are in existence in Japanese nation character and Korean native Chinese characters. The meanings of them, however, are different due to the distinction of the word formation. In addition, this paper demonstrated that in the case of Japanese nation characters, they have the meanings which are 'dae(ぬた, sojeon) go(はたらく, saegakhaeseo(gominhaeseo) ilhada), seon(みずかね, sueun), jeong(ど)じょう, mikkulaji), ma(はも, gaetjangeo),' whereas the Korean native Chinese characters have the meanings which are 'dae(teo), go(dajim), seon(bokja), jeong(gamulchi), ma(samchi)'

Given the respects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Korean native Chinese characters and Japanese nation characters, in the ancient period, Korean native Chinese characters 'ryang (棕, changgo), don (獐, dambi), [geumong (金瓮)](geumsokje janggun), il (鎰, jamulsoe)' were flowed and used in Japanese. Furthermore, from the end of 19th century to around the 20th century, some Japanese nation characters were flowed in Korean, which were 'sang(峠) (とうげ, gogae), jeon(畑) (はたけ, bat), dong(働)(はたらく, ilhada), jeong(柁)(まさめ, namuui goteun gyeol), seol(鱻)(たら, daegueo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大口魚)), ip(吹)(かます, gamani), in(籾)(もみ, byeo), ip(込)(こめる, soke damda), yak(鰯)(いわし, jeoneori, myeochi), seon(腺)(bunbisaem), chwe(膝)(chwejang).’

In respects of discovering the trace of Korean native Chinese characters which was left in the Japanese data, this paper identified the word formation which was applied to ‘seo(闇), sang(性), seon(善)’ from the point which the meanings have left in the Japanese data which included respectively ‘ミヤコ(dohoeji), いのる(sinkke bilda), ヲサム(chiryohada).’

[Key Words] Japanese nation characters(日本 國字), Korean native Chinese characters(韓國 固有漢字), rule for Chinese-Character-formation(漢字의 造字法), the standards for judging the inherence(固有性 判斷 基準), Compound ideograms(會意字), Phono-semantic compounds(形聲字)

